

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동네 살아있다

-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재개발지역의 기억과 기록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미추홀학산문화원
Micheul Haksan Culture Center

 살아있는 문화센터

동네, 살아지다



기획소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안3동은 재개발이 확정되는 과정 동안 많은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동네,살아지다>는 떠나는 인구와 남아 있는 인구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삶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담아낸 작업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내고 회자되어 지역의 생활을 담은 문화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배경이 된 주안3동 일부가 조만간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모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 사라져가는 동네를 기록하고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동네의 역사를 알아보고,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사진으로 동네의 풍경을 담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커뮤니티 판화의 방식으로 동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인생’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다’라고 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살아온 곳, 동네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그래서 우리는 곧 사라질 동네에 대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통해 옛 기억으로 사라져 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삶의 단초를 여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이 회 만



* 미추홀구 주안3동 재개발사업은 총 부지 4,712㎡에 총 사업비 3,162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3개 동 2천여 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 동, 경로당 및 보육 시설 1개소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네, 살 아 지 다’의 시작

우리동네 주안3동은 아름다운 선비가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사미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성껏 가꾼 마당과 정겨운 골목이 있는 동네지요.
당진슈퍼 앞 평장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애용하는 아지트였어요.
민초가락도 배우고, 복침개도 부쳐 먹고 하하 호호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당진아~ 커피마시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당진아..” 부르다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사 나간 텅 빈 당진슈퍼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40년을 함께 복대끼며 살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내 몸 의지하며 살아온 집들이 부서져 내려갑니다.

이제는 사라진 우리 동네,

사건과 판화로 다시 새겨진 우리 동네,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아있는 동네이길 바랍니다.



Contents

■ 알아가기	11
주안3동, 우리의 여정	12
동네 알아보기 - 역사수업	14
살살이 돌아보기 - 동네사진수업	15
카메라로 바라본 동네 - 주민들 사진기록	19
■ 기록하기	41
시각예술로 상상하기 - 판화수업	42
판그림으로 새기는 우리동네 - 판화작품	49
■ 전시하기	51
동네, 기억하기 - 동네전시	52
동네, 상상하기 - 센터 내 전시	60
황해미술제 평화로 날다 - 연계전시	65
스물아홉개의 평화 - 초대전시	68
■ 살아가기	70
함께 한 사람들 이야기 - 참여자 후기	71
■ 2019년 발자취	82



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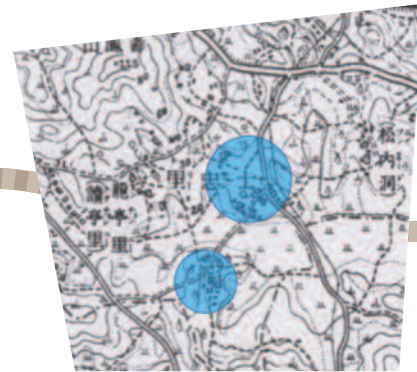
주안3동, 우리의 여정
동네 알아보기 _ 역사수업
살살이 돌아보기 _ 동네사진수업
카메라로 바라본 동네 _ 주민들 사진기록



주안3동, 우리의 여정



살기 좋은 우리동네



주안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비 오는 날의 스케치



가로막힌 동네



파고 문지르고 찍어내 기억하기



동네에서 함께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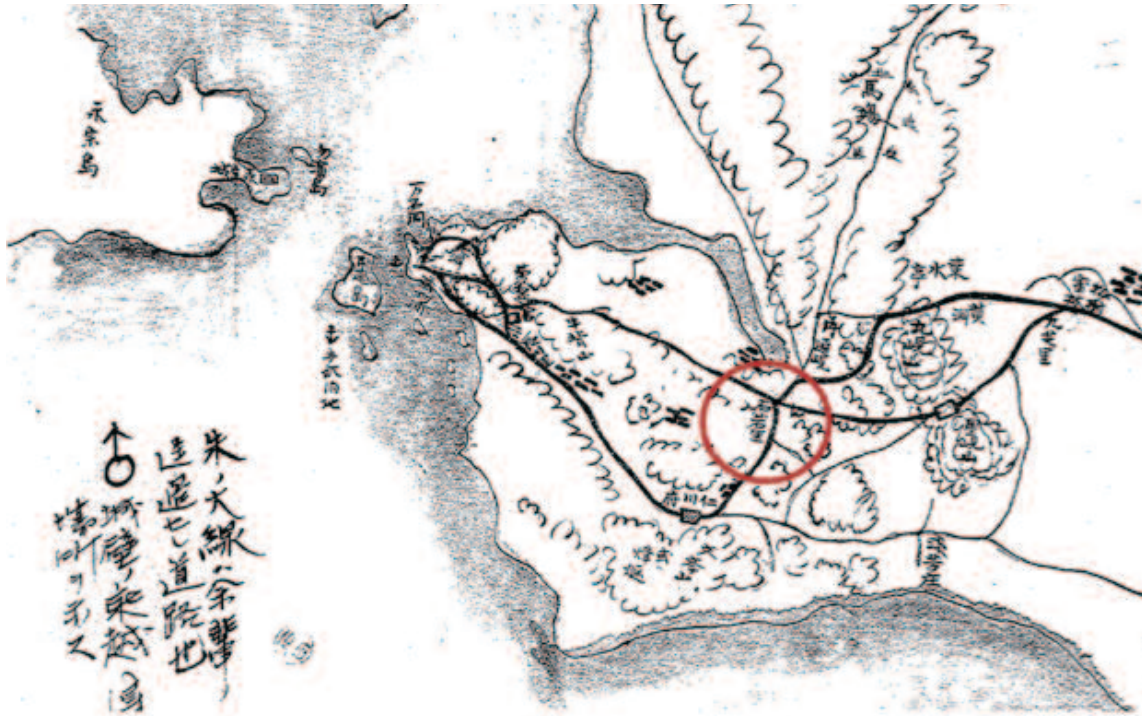
안녕, 주안3동



마음속에 머무르는 우리동네

주안의 지명

“주안은 주안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땅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주안산은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등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간석동 만월산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글자 그대로 흙이 붉고 산의 모양이 기러기가 내려앉은 것 같아 주안산이라 불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동여지도에는 주안산으로 나온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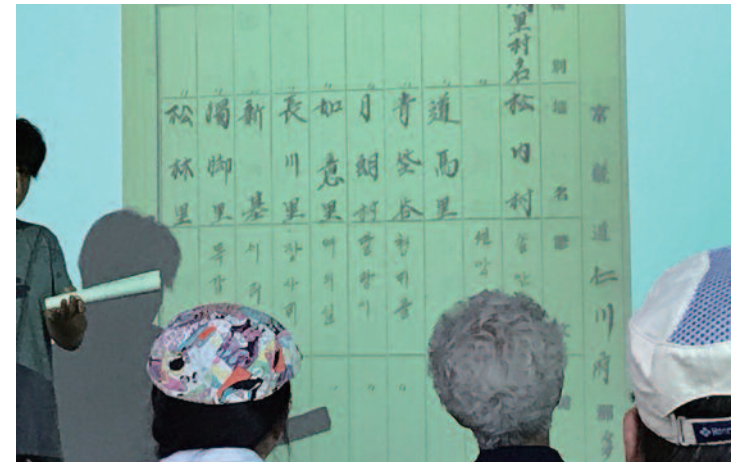
「도시마을생활사 - 주안동」에 수록된 지도자료

1) 인천광역시 남구청(현 미추홀구청), 「도시마을생활사 - 주안동」, 2017, 47쪽 자료

주안동은 원래 인천부 다소면 충후부와 사미마을이었어요.
 ‘사미’란 아름다운 선비라는 뜻으로
 우리 동네는 아주 오래전부터 촌락을 이루고 있던
 오래 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너무 많아 눈이 팽팽 돌아갔지만,
 우리동네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2019. 5.20 ~ 27

오늘은 다 같이 동네를 돌아보고 사진으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빈집들이 많았지만 이웃들이 키우던 마당의 나무들은 푸르르게 무성했습니다.



각자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었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동네에 펜스가
 올라간대요.
 봄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지만
 다 같이 알록달록
 우비를 나눠 입고
 열심히 동네를
 돌아보았답니다.

이 사진들은
2019.05.09. ~ 06.14.까지의 주안3동 모습이에요.
이영욱선생님이 사진 멘토를 해주셨어요.
김영신, 김현자, 남용란, 백목련, 유인숙, 이의록,
윤진한, 전상미, 전수연, 한선화, 황미애가
함께 찍었습니다.
더불어 오인영 사진작가님이
재능기부도 해주셨어요.





현자 어머니네 집 전경



유명 배우의 부모님이 운영했다는 대양탕



펜스가 쳐지기 시작한 주안3동



빈 집의 무성한 나무들



녹슨 우체통과 철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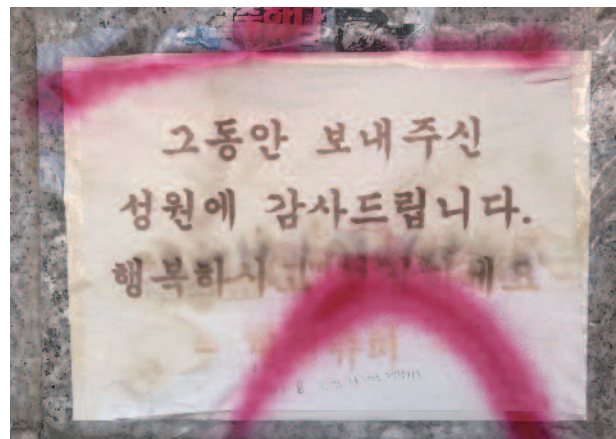
동네 자랑거리 황소벽화를 덮은 '공가' 표식



귀여운 담벼락의 집주인도 이사를 갔습니다



대문을 굳게 지켜주던
사자들과
당진슈퍼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





이제는 텅 빈 기흥주택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복잡한 거미줄 전선에 걸린 가스위험 현수막



아직 살아가는 것들



굳게 걸어 잠근자물쇠와 주인 잃은 인형들



2019. 10. 28. 안녕, 주안3동 - 정들었던 나의 집 그리운 나의 동네



덩그러니 남은 현자 어머님네 집



스산한 골목길



텃빈 당진슈퍼



허물어진 동네

기록하기

시각예술로 상상하기 _ 판화수업
판그림으로 새기는 우리동네 _ 판화작품





- 작 품 명 : 동네, 살아지다
- 작품크기 : 240cm × 120cm
- 에 디 셴 : 9 (종이 6 / 광목 3)
- 제작년도 : 2019
- 제작기법 : Wood cut (목판화),
- 만든사람 : 김영신, 김현자, 남용란, 백목련, 유인숙, 윤진한, 전상미, 전수연, 한선화, 황미애
- 판화지도 : 윤종필, 윤언수

이 판화의 제목은 <동네, 살아지다>예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일부분이 재개발 지역이 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동네, 그러나 곧 사라질 동네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여러 차례의 답사 통해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커뮤니티 판화 작업으로 동네와 동네사람들의 이미지를 아카이빙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담았던 동네를 판화로 표현해요.
롤러에 잉크 잔뜩 발라 판 위에 올리고,
다 같이 올라가 발로 문대고,
신나는 노래 들으며 트위스트도 한바탕 춥니다.
우리 작품이 잘 찍혀 나오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서명을 남기면..
드디어 완성~!
종이 6장,
광목천 3장
총 9장의 작품이 탄생했어요.





이번에는
사진으로 담았던 동네를
각자 작업으로
판화로 기록해요



김현자



윤언수



남용란



황미애



김영신



윤진한



한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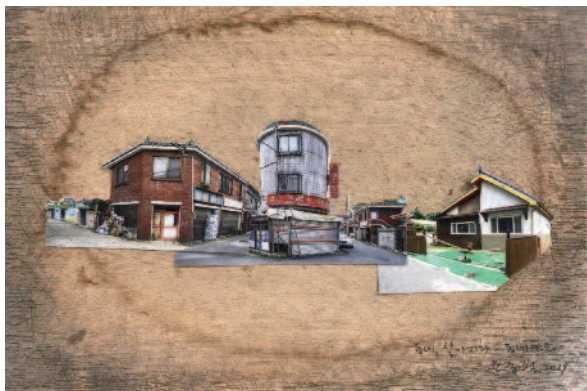
백목련



우리가 찍은 사진으로
 콜라주 작업을 했어요.



기억의 사진집.
 익숙한 동네지만 이렇게 이어놓고 보니
 새로운 동네 같아요



작가 윤종필

전시하기

동네, 기억하기 - 동네전시
동네, 상상하기 - 센터 내 전시
황해미술제 평화로 날다 - 연계전시
스물아홉개의 평화 - 초대전시



동네, 기억하기

- 일시_ 2019. 10. 28.
- 장소_ 미추홀구 주안3동 '미추홀 공원'



동네, 살아지다
／ 동네, 기억하기_동네전시



10월 28일, 별 좋은 어느 가을날
우리는 그동안 만든 작품을 들고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동네 사람들이 참 흥이 많았는데...”



“여기쯤이 우리집이었던 거 같은데?”



판화로 남겨진 동네를 배경으로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이사 간 차들도 놀러왔어요



주민들과 함께 한 하루

동네, 상상하기

- 일시_ 2019. 10. 30.
- 장소_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커뮤니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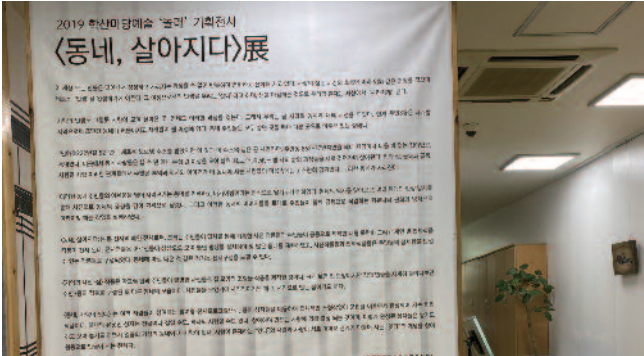
동네, 살 아 지 다

／ 동네, 상상하기_ 센터 내 전시



10.30. 학산생활문화센터

“우리동네를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당진슈퍼 앞 평상은 사라졌지만, 여기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함께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가득 채웠어요.



6개월 간 우리가 만들어 온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보았어요.
‘고향의 봄’ 오카리나 소리가 마음을 울리는 전시였어요.

황해미술제 평화로날다

- 연계전시 -

- 일시 _ 2019. 10. 25. ~ 27.
- 장소 _ 부평공원 소나무광장



제19회 황해미술제¹⁾ 평화프로젝트2 - 평화로 날다
커뮤니티판화 <동네, 살아지다>

이제는 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일상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긴 작품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1) 인천민예총과 인천민족미술인협회에서 주최하고 인천민족미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전시



스물아홉개의 평화

- 초대전시 -

- 일시 _ 2019. 10. 17. ~ 29.
- 장소 _ 갤러리 포지션민 제주





갤러리 포지션민 제주 개관기념전 '스물 아홉 개의 평화'

살아가기

함께 한 사람들 이야기 - 참여자 후기





“인간이란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어 사라져 가는 옛 추억을 되살려 보려는 애잔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 정든 이웃, 내 손때 묻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던 나의 그리운 집! 사랑하던 이웃! 이제 사라져 가는 나의 추억(追憶)들을 되살려 보고자, 옛 고향 그리며, 그 흔적이라도 찾아보고자 헤매나 보다. 이제 우리의 사라져 가는 동네를 정성으로 새겨서 그려 본 판그림 그렇게 지난 몇 개월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그리운 추억으로 살아가겠지... 참! 즐겁고 행복(幸福)했던 지난 몇 달! 이처럼 좋은 시간 마련해준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알차고, 더욱 즐거운 내년의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윤진한



“2019년 지금을 충실히 살아보고 싶었다. 동네, 살아지다 커뮤니티 판화에 눈길이 갔다. 고무판에 자기의 그림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사라질 동네를 마음으로 보고, 그곳을 사진으로 담아, 나무판에 기억의 공간을 새기는 작업이었다. 한 땀, 한 땀 공동으로 같이 파는 순간, 대양탕이 태어나고, 파란 기와집이 나왔고, 즐겁게 웃음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시던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 사자 문양의 문고리, 동네 고양이들이 살아 숨 쉬게 되었다. 나무판에 잉크를 묻히고, 종이에 찍던 모습이 생각난다. 광목천에 잉크작업을 하고, 더 선명하게 잘 찍히라고, 신나는 음악에 맨발로 트위스트며 제각각의 춤사위가 정겨웠다.“

김영신



“주민들은 벌써 이사를 가고 빈 집만 쓸쓸히 있다. 비둘기와 고양이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담 벽에 앉아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마냥 기다리는 듯 했다. 사람 없는 동네 너무 쓸쓸했다. 그 중에 괜찮은 집들도 꽤 있었다. 이집을 두고 떠나는 주민의 마음은 어땠을까. 재개발은 절대 안 된다. 프린 카드도 보였다. 동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 생각해본다.”

남용란



“주민들이 참여해 오랜 시간 이웃들과 삶을 나누던 동네에 담긴 기억과 추억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짐을 아쉬워하며 동네를 탐방하고 긴 시간 대형 목판화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그리움을 고무판화에 새겨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현장에서 판화작업을 같이하며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작품을 만든 주민작가들과 그곳에 오랜 시간 살다 떠나신 주민들과 함께 다과와 차를 마시며 작품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된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동네에 살아지다>라는 글엔 동네에 살았었는데 떠나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계속 살고 있는 주민들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잊히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과 기억하는 뜻 깊은 작품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백목련



“그동안 여러 전시회를 보러 다녔다. 모두 훌륭하고 대단했다. 그러나 10월 28일 우리가 한 작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전시회였는지 그제야 알았고 그 감동은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주안3동을 새긴 대형목판화 "동네 살 아지다"는 주민들이 작품 속에서 나와 이야기 꽃을 피우며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살아지는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판화처럼 새기게 되었다. 마을주민이 참여한 이 공동작업은 토닥토닥 나를 위로하고 동네를 추억하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소중하고 행복한 수업이었다.”

전상미



"동네, 살아지다"를 주제로 한 전시가 미추홀공원에서 열렸었다. 단체목판화와 개인고무판화가 전시됐다. 재개발되는 주안3동의 철거되어 없어질 모습을 사진 찍은 후 목판화에 그려서 주민들이 합동으로 조각하니 예술작품으로 태어났다. 6월~10월까지 오랜 시간 작업한 것을 야외공원에서 전시하고 재개발로 이주했던 주민들도 오셔서 전시된 작품을 보며 사라지는 동네의 그리움과 추억을 눈으로 보는 것에 현장감을 느꼈다. 전시당일 이미 과거 속에 남긴 목판화 동네와 그 동네 삶의 터전의 주인공들을 함께 보면서 과거와 현재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재미있는 역사의 한 장면 같아서 표현 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주민들, 작품, 야외공원의 만남 또한 예술작품의 한 장면이 되어 멋진 가을을 보낼 수 있었다!”

한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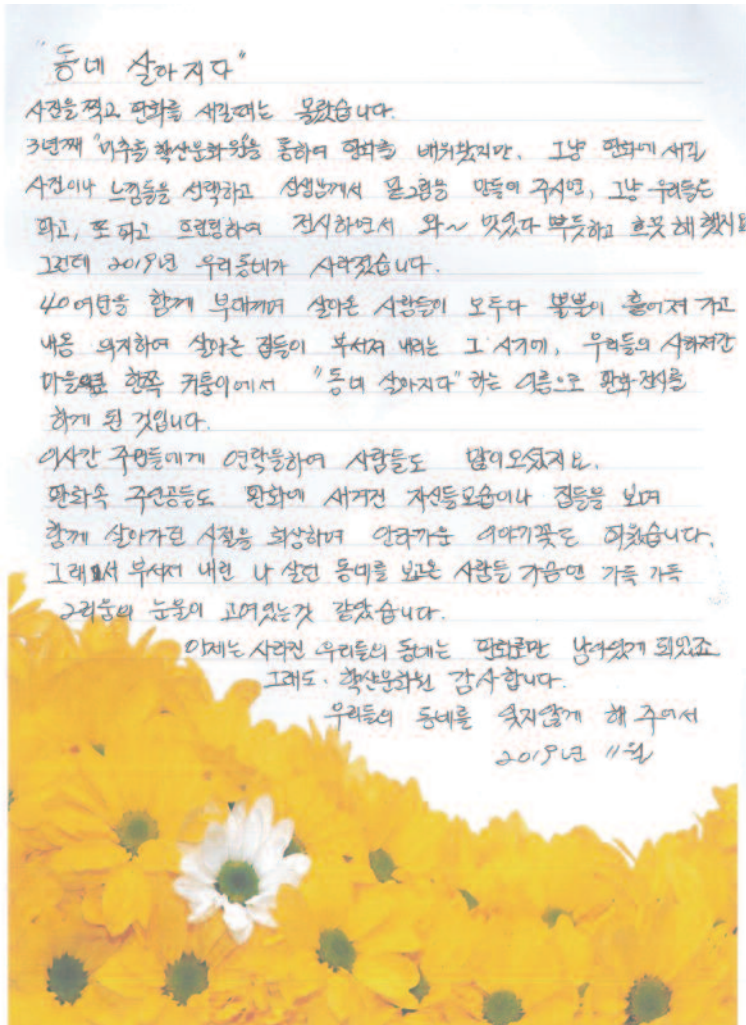
“‘동네, 살 아 지 다’ 판화 수업이 있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했던 판화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동네를 직접 찾아서 사진을 찍고 동네에서 주민들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들으면서 판화로 동네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판화수업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동네를 기억하고 그곳에 사셨던 분들의 추억을 담는 작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고르고 커다란 나무판을 파기 시작했을 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 하셔서 첫 번째 판화를 찍었을 땐 환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주민들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누고 추억을 나눌 수 있게 전시까지 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황미애



“학산문화원 공고문에 공동판화작업을 한다고 하여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참여 신청을 했다. 첫 시간에 주안 지역의 지명이 생기게 된 유래를 알게 되어 좋았고, 두 번째 시간은 사진 기법을 배우고 주안3동으로 직접 나갔다. 사진을 찍으면서 남겨두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다. 골목골목에서 어른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예쁜 집과 나무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슬펐다. 슬픔과 아쉬움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우리가 찍은 사진들 중 대형판화 밑그림을 선택할 때 넣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판화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각도 쓰는 법도 익히고 개인 고무판화 작업도 했다. 학생때 이후 처음 하는 작업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신 덕에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었다.”

전수연



김현자

- 2019.05.13. 지역에 대한 이해 '주안의 역사'
- 2019.05.20.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담을지 고민하기(사진수업)
- 2019.05.27. 주안3동 사진스케치 I
: 사라지는 것들 - 빈집, 빈 점포, 잡초 가득한 골목, 무너진 담벼락
- 2019.06.30. 주안3동 사진스케치 II
: 살아가는 것들 - 나무, 정원, 길고양이, 빌라, 사람
- 2019.06.10. 판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개인 판화 제판
- 2019.06.17. 개인 고무판화 프린팅
- 2019.06.24. 동네의 이야기를 한 곳으로 모아 시안 작업하기
- 2019.07.01. 그림에 담긴 이야기 듣기. 목판화 제판 시작
- 2019.07.08. 제판작업
- 2019.07.15. 제판작업
- 2019.07.22. 제판작업
- 2019.07.29. 제판작업
- 2019.08.12. 제판작업
- 2019.08.19. 제판작업
- 2019.08.26. 프린팅
- 2019.09.02. 프린팅
- 2019.09.09. 작품서명
- 2019.09.16. 개인판화 (동네 풍경, 건물)
- 2019.09.23. 개인판화 (동네 풍경, 건물)
- 2019.09.30. 개인판화 (동네 풍경, 건물)
- 2019.10.07. 콜라주 작업
- 2019.10.14. 콜라주 작업
- 2019.10.21. 전시 준비
- 2019.10.26. 황해 미술제 함께하기
- 2019.10.28. 동네, 기억하기 (주안3동 동네전시)
- 2019.10.30. 동네, 상상하기 (생활문화센터 전시)

동네, 살아지다



- 발 행 일 2019.10.31.
- 발 행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 기 획 · 제 작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 판 화 지 도 윤종필, 윤언수
- 사 진 지 도 이영옥
- 함께한 사람들 김영신, 김현자, 남용란, 백목련, 윤진한, 전상미, 전수연, 한선화, 황미애
- 사 진 제 공 오인영
- 글 유인숙
- 삽 화 윤언수
- 디 자 인 디자인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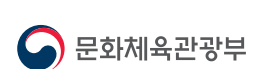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haksanculture.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chhaksan>

도움주신 곳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주안3동 재개발추진 위원회

이책은 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이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 및 글은 발행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미추홀학산문화원
Michuhol Haksan Culture Center

 해인
영랑문화센터마당